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2022년 12월 13일 | 조사역(G3) 김혜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4천 km ² 	인구 1,054만명 (2022 ^f) 	정치체제 연방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추구 
GDP 5,039억 달러 (2022 ^f) 	1인당GDP 47,793달러 (2022 ^f) 	통화단위 the Emirati Dirham (AED) 	환율(U\$기준) 3.67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푸자이라흐(Fujairah), 라스 알-하이마흐(Ras al- Khaimah), 샤르자흐(Sharjah), 움 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emirates)으로 구성된 연방 군주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및 오만과 접경하고 있으며 이란과는 페르시아 만을 사이에 두고 있음.
- 중동 산유국 중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 다각화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으며, UAE 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향후 50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9월 '50개 프로젝트' 및 세부 프로젝트 26개를 공개하였음.
- 2021년 국내외 경기 회복 등으로 3.8%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였으며, 2022년에는 산유량 증가 및 고유가 지속, 민간소비 증가, 코로나19사태의 진정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부동산 부문의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5.1%의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됨.
- 연방 내 여타 토후국에 대한 아부다비의 경제적 지원, 아부다비와 두바이 간 적절한 권력 배분으로 정국 안정이 유지되어 국내 정치적 리스크는 낮으나, 중동 지역의 복잡한 역학관계(특히 이란과의 관계) 및 주변국의 내전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0. 6. 18 수교 (북한과는 미수교)

주요협정 투자증진·보호협정('04), 이중과세방지협약('05), 군사협력협정('07),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08), 문화협력협정('08), 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협정('10), 항공협정('10), 세관협력협정('15), 사증면제양해각서('16), 범죄인인도조약('17), 형사사법공조조약('17), 이중과세방지·탈세·회피예방협약('20)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3,469,772	3,653,611	3,974,772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자동차
수입	8,991,147	5,692,741	7,318,737	원유, 석유제품, 알루미늄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6월 말 누계, 총 투자기준) 495건, 2,664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1.2	3.4	-4.8	3.8	5.1
소비자물가상승률	3.1	-1.9	-2.1	0.2	5.2
재정수지/GDP	1.1	0.4	-5.2	2.1	7.7

자료: IMF, EIU

중동 산유국 중 산업다각화에서 가장 앞서고 있으며, 비석유 부문의 안정적 성장 지속

- UAE는 중동 산유국 중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 다각화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2014년 하반기부터의 석유·가스 부문의 부진을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상쇄하여 국가경제의 석유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및 그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을 경감시켰음.

[표 1] 연도별 GDP 규모 및 산업별 구성 현황

단위: 억 디르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14,805	13,153	13,112	14,161	15,506	15,322	13,179
석유·가스 부문	5,052	2,870	2,531	2,900	4,029	3,474	2,271
비석유 부문	9,754	10,283	10,581	11,262	11,477	11,848	10,908
도소매업 무역 및 자동차·오토바이 수리업	1,558	1,610	1,705	1,883	1,905	2,024	1,787
금융 및 보험업	1,155	1,252	1,316	1,339	1,322	1,358	1,298
제조업	1,149	1,162	1,178	1,296	1,354	1,346	1,276
건설업	1,223	1,277	1,238	1,278	1,325	1,374	1,227
공공행정·방위산업 및 사회보장	804	837	887	994	1,049	1,049	1,024

자료: UAE 연방통계청.

2020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4.8%의 역성장 시현

- 2020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 국제유가 약세 및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산유량 감소로 석유 및 비석유 부문이 큰 폭으로 동반 위축되며 -4.8%의 역성장을 시현하였음.
- 비석유 부문의 경우, 두바이 경제의 주요 산업이자 세계경기에 민감한 무역업, 물류업, 관광업* 등의 타격이 특히 컸음.

* Moody's에 따르면 두바이 방문 관광객 수는 2019년 16.7백만 명에서 2020년 5.5백만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됨.

국내경제

2021년 경제는 국내외 경기 회복, 두바이 엑스포 개최 등으로 3.8%의 플러스 성장 회복

- 2021년 경제는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세, 두바이 엑스포 개최¹⁾와 이에 따른 관광업 회복,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3.8%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음.

* 2021년 11월 7일 기준 1차 이상 접종률은 97.51%이며, 접종 완료율은 87.51%임.

-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가 및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국제원유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2021년 8월 말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에 따른 미국의 원유 생산 차질, OPEC+의 기존 증산 속도 유지(8.1일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 증산) 등으로 인한 공급 제한으로 원유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됨.
- 한편, 2021년 7월 OPEC+ 회의에서 합의된 감산 쿼터 완화 규모는 UAE가 만족할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UAE 경제에 대한 석유 부문의 기여도는 2022년 산유량 쿼터 조정* 전까지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됨.

* UAE는 2021년 7월 OPEC+ 장관 회의에서 실제 생산능력(일 400만 배럴 이상 추정)에 비해 자국의 OPEC+ 쿼터 산정 기준이 되는 산유능력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에 불만을 표했음. 이에 OPEC+은 2022년 5월부터 UAE의 원유 생산기준을 상향 조정(320만 b/d → 350만 b/d)하기로 합의함.

- UAE의 일평균 산유량은 2019년 305.8만 배럴에서 2020년 277.9만 배럴, 2021년 1분기 261.0만 배럴로 크게 감축*되었음. 이후 산유량은 2021년 2분기 264.5만 배럴, 2021년 3분기 275.8만 배럴, 2021년 4분기 285.4만 배럴로 감산 폭이 점차 완화되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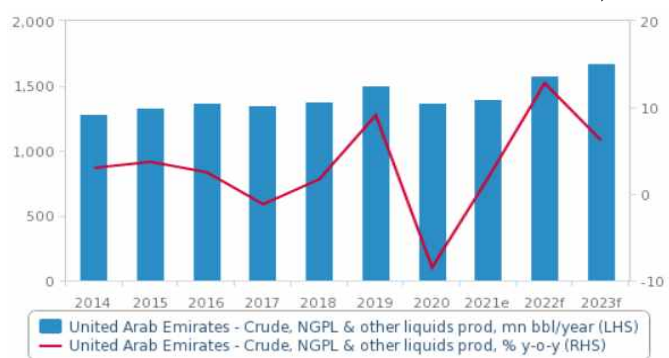
* OPEC+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유의 국제수요가 위축된 것을 감안하여 2020년 5월부터 산유량 감축에 합의한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감산 쿼터를 조정 중임.

[그림 1] 국제유가 변동 추이(달러/배럴)



자료: Fitch Solutions

[그림 2] UAE의 연간 산유량 및 변동률(배럴/년, %)



자료: Fitch Solutions.

1) 두바이 엑스포는 2020년 10월 20일 개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되어 2021년 10월 1일 개막 하였으며, 최대 192개국 참가하에 6개월 간 운영되었음. Ernst & Young(2019.4월)는 두바이 엑스포로 인한 총 부가가치는 각종 인프라 건설, 관광객 방문, 행사 후 전시공간 활용 등으로 334억 달러(직접효과 146억 달러, 간접효과 115억 달러, 유발효과 73억 달러) 상당에 달하고, 총 905,200개의 일자리(연 49,700명)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2) OPEC. "2021 Annual Report"

국내경제

2022년 경제는 산유량 증가와 고유가 지속, 민간소비 증가, 관광 부문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5.1%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

- 2022년 UAE 경제는 산유량 증가 및 고유가 지속, 민간소비 증가, 부동산 부문의 투자심리 개선,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두바이 엑스포(2022.3월 폐막) 및 주요 상대국들(인도·파키스탄 등)로부터의 입국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5.1%의 견조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
- 2022년 7~8월 UAE의 일평균 산유량은 330만 배럴로 2021년 일평균 산유량(290만 배럴) 대비 크게 증가함.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혁과 인센티브,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투자활동이 강화되었음. 2022년 8월 UAE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6.7로 201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1~8월 평균 PMI 평균은 2019년 이후 최고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추세와의 격차를 좁혔음.
- 아랍에미리트는 상업회사법 개정, 기업가를 위한 다양한 비자 제도, 두바이의 디지털 전환법, 아부다비의 등록수수료 인하 등 제도 개선 노력, 이웃 국가들 및 다른 주요 MENA 강대국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2022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137.2억 디르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을 기록함.
- Fitch는 2023년에도 UAE 경제가 높은 석유 수출량,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및 물류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겠으나, 동시에 세계수요 둔화와 그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긴축적 통화정책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 2022년보다는 둔화된 약 4.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음.

[표 2] 기관별 UAE 2022~24년 경제성장률 전망

연도	IMF(10월)	중앙은행(9월)	EIU(11월)	Fitch Solutions(9월)	IHS Markit(11월)
2022년 ^e	5.1%	6.5%	6.8%	6.0%	6.3%
2023년 ^f	4.2%	4.2%	4.4%	4.5%	2.7%
2024년 ^f	3.9%	-	3.6%	3.5%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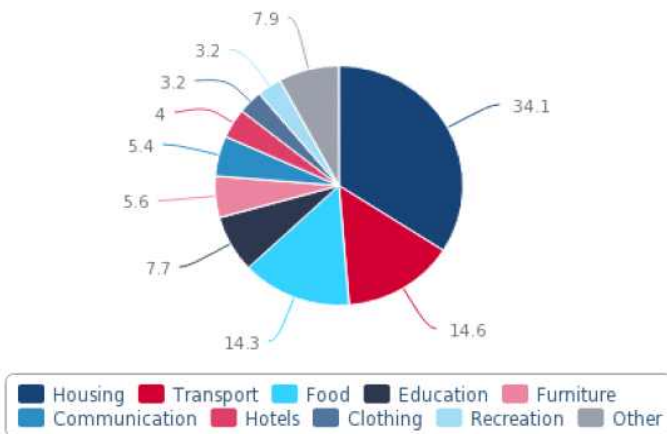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국내경제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5.2%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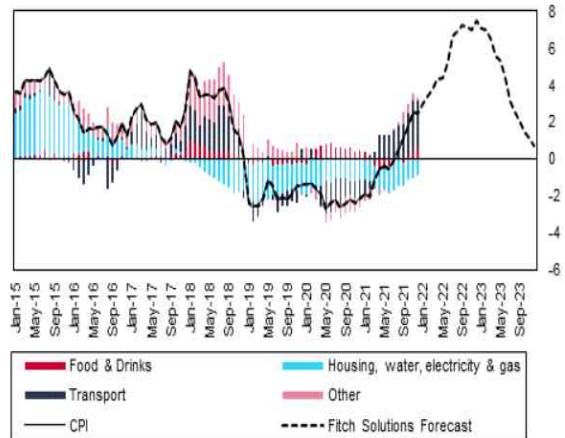
- 2022년 7월 두바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운송비, 임대료 상승과 민간수요 증가로 지난 7년 중 월간 최고치인 7.1%를 기록했으며, 이는 GCC(걸프협력위원회) 회원국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임.
- UAE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 카타르 FIFA 월드컵 대회 효과 등으로 향후 몇 달간 임대료가 추가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023년에는 글로벌 상품가격 안정과 공급망 압력 완화로 UAE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 후반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UAE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요소별 비중(%)



자료: Fitch Solutions. (원자료: UAE 통계청)

[그림 4] UAE의 항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2015.1.~2022.9.)



자료: Fitch Solutions.

2022년 재정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년에 비해 흑자 규모 확대 전망

- 연방정부 재정수입의 주요 재원은 아부다비의 석유수출 수입(收入)으로, 국제 원유 시황은 UAE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 시행, 경기 부양, 대규모 투자 추진 등을 좌우하고 있음.
- 2020년 재정수지는 국제적인 저유가 기조와 OPEC+의 감산 합의 및 국제 석유수요 감소에 따른 산유량 감소로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의 실시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5.2%의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2021년에는 국제유가 회복세 등으로 GDP 대비 2.1%의 흑자를 회복함.
- 2022년 재정수지는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 수출 물량 증가, 견조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GDP 대비 7.7%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사회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4년부터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이는 2023년 중반부터 시행되는 비유류 과세 기반 확대, 9%의 법인세 도입 등의 효과로 상쇄될 전망이다.

* 2022년 사회적 지원 예산은 280억 디르함(약 736억 달러)로 2021년에 비해 2배 증가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40,478	37,321	21,067	47,995	116,319
경상수지/GDP	9.6	8.9	5.9	11.4	23.1
상 품 수 지	85,652	80,452	60,305	79,036	154,894
상 품 수 출	320,991	313,749	272,121	323,278	450,427
상 품 수 입	235,339	233,297	211,816	244,242	295,533
외 환 보 유 액	98,412	106,381	102,164	123,767	130,705
총 외 채	228,731	280,403	327,941	341,741	354,053
총외채잔액/GDP	54.2	67.2	91.4	81.4	70.3
D.S.R.	12.8	9.8	11.5	8.5	6.7

자료: IMF, EIU 및 OECD.

2022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제유가 상승, 재수출 및 관광수입 증가 등으로 2021년에 이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2021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출액 증가뿐 아니라 주요 외화소득원인 재수출*(기계류 포함) 규모 증가 및 두바이 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광 수입 증가 등으로 2020년 대비 127.8% 증가하였음.

* UAE는 다양한 물류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로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중개무역 시장의 역할을 수행 중임.

- 2022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과 두바이의 관광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1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년 대비 평균 41% 상승한 국제유가, 일평균 산유량 증가 등으로 인해 2022년 UAE의 원유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진행된 두바이 엑스포, 풍부한 관광자원, 단순한 비자 시스템, 2022년 11월 카타르 FIFA 월드컵 등의 영향으로 관광 부문이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외채상환능력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17년 지속된 재정수지 적자의 보전을 위한 정부의 대외차입 증가로 인해 2014년 15.5%에서 2019년 27.1%까지 상승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국제 유가 폭락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함과 아울러 재정수지가 GDP 대비 -5.2%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40%대로 급등하였음.
- 그러나 2021년부터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 수출 물량 증가,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2021년 37.1%, 2022년 35.0%로 점차 안정되는 추세임.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관리 및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신뢰성 확보로 채무상환능력 양호

-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를 지속하여 2022년 말에는 전년(1,238억 달러) 대비 약 5.6% 증가한 1,30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3.8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준임.
- UAE의 총외채잔액은 2017년 2,256억 달러에서 2022년 3,541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지표는 2021년 총수출이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개선되었음.

[표 3] UAE의 연도별 외채 관련 주요 지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o
총외채잔액(억 달러)	2,287	2,804	3,279	3,417	3,541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535	421	422	377	442
총외채잔액/총수출(%)	54.9	65.4	89.3	77.3	59.5

자료: OECD, EIU

- UAE는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코자 연방정부 차원으로는 최초로 2021년 10월 4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응모액 225억 달러),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양호한 외화자금 조달 능력을 입증한 바 있음.
 - * 10년물 10억 달러(UST+70bps), 20년물 10억 달러(UST+105bps), 40년물(포모사 본드³⁾) 20억 달러(3.25%)로 구성
- 한편, 아부다비 정부는 토후국 차원에서 2021년 5월과 9월 각각 20억 달러(응모액 69억 달러, 7년물) 및 30억 달러(응모액 97.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였음.
 - * 10년물 17.5억 달러(UST+63bps), 30년물 12.5억 달러(3%)로 구성
- UAE는 2022년 90억 디르함 규모의 국고채 발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2년 5월 15억 디르함 규모의 첫 재무부 채권을 발행하였고, 5.7배의 초과 청약이 접수되는 등 수요가 강세를 보임.

3) 외국 기관이 대만 자본시장에서 현지 통화(대만달러)가 아닌 타국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 외에도 다수의 대규모 국부펀드 운영

- UAE는 외환보유액 외에도 석유수출 자금 등 잉여자금을 재원으로 중장기 수익성을 추구하는 다수의 대규모 국부펀드를 운영 중이며, 특히 아부다비의 경우 세계 4위 및 13위 규모의 국부펀드를 보유함.
- 국부펀드는 미래산업(테크놀로지,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등) 및 인프라 투자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 4] 연방정부(UAE) 및 토후국 소유 주요 국부펀드 자산 현황

세계순위*	국부펀드	담당기관(설립년도)	소속 정부	총자산(백만달러)
4위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아부다비 투자청(1976년)	아부다비	649,176
11위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두바이 투자공사(2006년)	두바이	302,326
13위	Mubadala Investment Company PJSC	무바달라 투자회사(2002년)	아부다비	243,000
19위	Emirates Investment Authority	에미리트 투자청(2008년)	연방정부	68,000

* 국부펀드 총자산 기준

자료: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 (SWFI) (조회일자 2021.11.5.)

구조적취약성

신재생에너지 부문으로의 에너지원 다변화 노력

- 2021년 말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는 UAE의 원유 매장량⁴⁾이 40억 배럴 증가하여 1,110억 배럴이며(세계 6위 수준), 천연가스 매장량은 0.45조 m³ 증가하여 8.2조 m³(세계 6위 수준)라고 발표함.
- 석유·천연가스 산업은 UAE의 국부 창출을 담당하는 부문으로, UAE 경제는 국제 에너지 시장 환경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S&P의 2021년 5월 아부다비 신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석유·천연가스 산업은 UAE의 정치·경제·재정적 중추 역할을 하는 토후국인 아부다비 GDP의 약 50%(직접적 영향 한정) 및 중앙정부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S&P에 따르면 ADNOC는 석유·천연가스 생산량 증대 및 하류 부문(downstream) 사업 확대를 위해 2021~25년 간 총 1,2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투자를 통해 석유 생산능력은 2020년 초 일 400만 배럴에서 2030년 일 500만 배럴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단, 실제 산유량은 OPEC+ 쿼터 이내로 제한됨).
- 한편, UAE 정부가 석유 부문에 대한 경제의존도 감소 및 세계적인 탈석유화 기조 등을 고려하여 산업 다각화 정책을 꾸준히 펼친 결과, GDP 내 석유·가스 부문 비중은 2014년 이후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5] UAE의 연도별 GDP의 석유·가스 부문 비중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GDP 대비 비중	34.1%	21.8%	19.3%	20.5%	26.0%	22.7%	17.2%

자료: UAE 연방통계청.

- 특히, 수소 및 태양에너지 발전 등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의 전환을 위해 연방정부 및 토후국 차원에서 모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연방정부)** 2017년 '에너지 전략 2050'을 수립하여 총 에너지 믹스 내 청정에너지 비중을 25%에서 2050년 50%까지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발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carbon footprint)의 7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에너지원의 전략적 포트폴리오 목표는 청정에너지 44%, 가스 38%, 정탄(clean coal) 12%, 원자력 6%이며, 이를 위해 UAE 정부는 2050년까지 6,000억 디르함을 투자할 예정임.
- **(아부다비)** 아부다비투자회사 무바달라는 2006년 국내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탄소폐기물 제로 도시인 마스다르 시티의 건설을 위해 자회사인 아부다비미래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으며, 마스다르 시티에 10MW 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 중임. 아부다비는 2026년까지 5,700MW 규모의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임.
- **(두바이)** 2015년 수립된 '청정에너지 전략 2050'에 따라 청정에너지 공급 비중을 2020년 7%, 2030년 25%, 2050년 75%로 확대코자 하며, 2030년까지 가스 61%, 태양에너지 25%, 원자력 7%, 정탄 7%로 에너지원을 다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4)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2021.7월)

구조적취약성

총인구의 10% 내외에 불과한 자국민 비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 EIU에 따르면 총인구 대비 자국민 비율이 2006년 약 20%에서 현재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하락⁵⁾하였으며, 민간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은 외국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는 저임금, 저기술 기반의 아시아 출신으로, 이들은 가족의 생계자금 제공을 위해 임금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음. 즉, 이들의 소득은 대부분 자국의 대외유출로 이어져 저가의 비내구재 및 생필품 일부를 제외하면 민간소비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UAE 경제의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UAE 정부는 자국민의 민간 부문 취업 촉진을 위해 민간 기업의 자국민 의무 고용비율을 5년 후 10% (연 2%p씩 증가)까지 확대코자 추진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 취업한 자국민에 대해서는 급여·연금 납부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실업급여 등을, 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안식년 급여 지원(6~12월 간 급여의 50% 지급), 대출자 창업지원금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⁶⁾.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해결되기에는 인구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5) CIA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UAE 인구는 자국민(에미리트인) 11.6%, 남아시아인 59.4%(인도인 38.2%, 방글라데시인 9.5%, 파키스탄인 9.4%, 기타 2.3%), 이집트인 10.2%, 필리핀인 6.1%, 기타 12.7%로 구성(2015년 추정)

6)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21년 9월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경제 동향" (2021.10.7.).

성장잠재력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혁을 통한 외국인 투자환경 경쟁력 강화

- UAE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월 상업회사법을 개정, 2021년 4월 1일부터 외국회사의 지점 설립 시 로컬 서비스 에이전트를 임명해야 하는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6월 1일부터 현지법인 설립 시 요구되었던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UAE 국적자가 최소 51% 지분을 충족) 조항도 폐지하여 에너지 등 일부 전략산업을 제외하고 UAE 영토 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타중동국가 대비 UAE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였음. 다만, 각 토후국 경제개발부 권한에 의해 토후국별로 실제 회사 등록 및 라이선스 발급 절차는 상이함.
- 아부다비는 연방상업기업법에 따라 외국인 100% 지분 소유 가능 산업활동 725개(허용목록으로는 1,105개)를 선별하였으며, 두바이는 1,000종 이상의 상업 및 산업활동에 대해 외국인 100% 지분 소유를 허용하였음.
- 이처럼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혁의 노력으로, 2021년 8월 기준 UAE 내 설립된 외국계 회사 지사 수는 114개국 2,577개로 지난 10년 동안 52% 증가하였음⁷⁾.
- 국가 및 기업 경쟁력 관련 각종 지표에서도 UAE는 아랍권 국가 내 외국인 투자환경이 가장 잘 조성된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
- 2019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ICT 보급과 기술 부문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운송 인프라 환경도 발전되었음.
- 한편, 안보, 공공 부문 성과, ICT 보급, 생산물 시장,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건, 미래 인력, 행정 절차 부문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GCC 회원국의 기업환경 경쟁력 순위

지표명(평가대상국)	UAE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2019 세계경제포럼 글로벌경쟁력 지수(141개국)	25	36	29	46	45	53
2020 세계은행 기업여건순위*(190개국)	19	62	77	83	43	68
2021 유엔산업개발기구 세계제조업경쟁력 지수(152개국)	30	39	48	58	50	60

* 2021년 9월 세계은행은 2020년 기업여건 순위를 마지막으로 동 지표에 대한 발표를 중단기로 결정함.

- UNCTAD에 따르면 아랍권 내 FDI 유입액*이 가장 많은 국가로, 2021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한 207억 달러이며, 이에 따라 FDI 누계액은 1,716억 달러로 증가함.

* 연도별 유입액(억 달러): '16년 96.0 → '17년 103.5 → '18년 103.9 → '19년 178.7 → '20년 198.8->'21년 206.7 (자료: UNCT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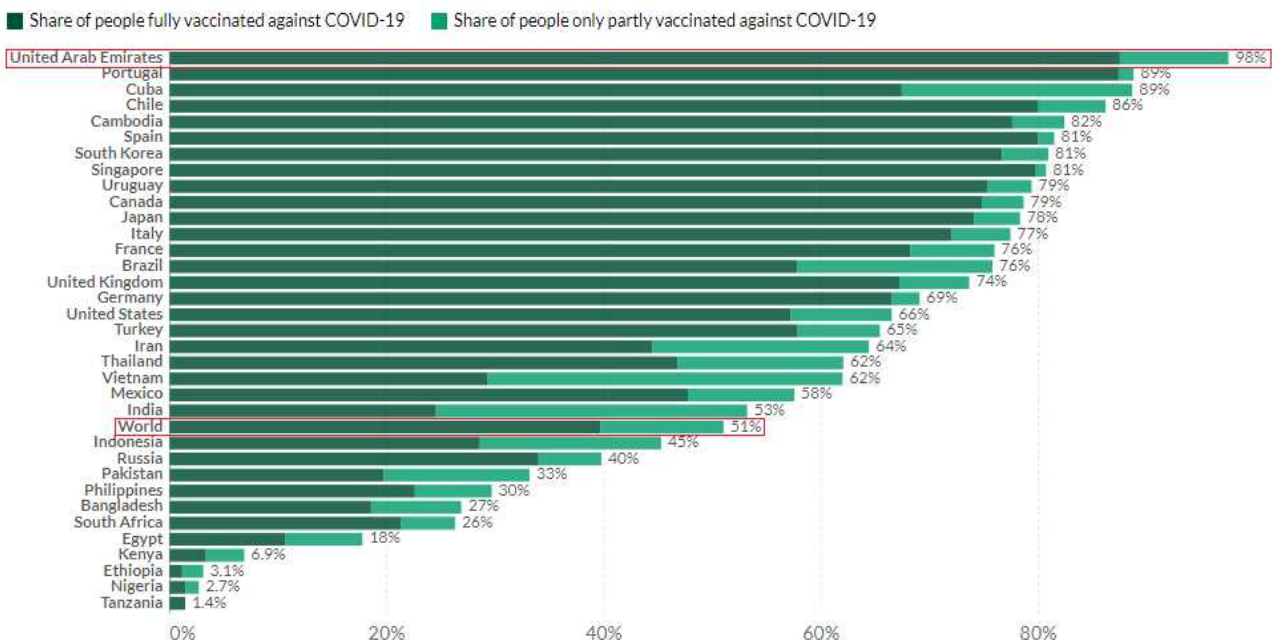
7)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 "2021년 8월 아랍에미리트(UAE) 주요 경제 동향". (2021.9.6).

정책성과

강도 높은 방역조치와 98%의 백신 접종률로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부상

- UAE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자 인구와 국토면적이 작은 절대군주제 국가의 통제적 체계 아래 강도 높은 선제적 방역조치와 함께 대대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 및 백신 접종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코로나19 관리가 역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능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UAE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 3월 19일부터 72개 입국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의 UAE 입국을 중단한 데 이어 3월 24일부터 UAE 출·도착 항공편 및 경유 항공편 운영을 잠정 중단한 바 있음.
- 한편, 통행금지, 영업제한, 이동제한 등의 강도 높은 봉쇄를 시행한 바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공적·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2020년 9월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발빠른 선제적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사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뒤, 아부다비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부터 UAE 거주자의 여행 및 외국에 체류 중인 UAE 거주 비자 소지자의 UAE 재입국을 허가하였으며, 두바이는 2020년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재개하였음.
-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1년 11월 7일 기준 UAE의 백신 접종률은 97.51%(1차 접종률 기준)로 세계 1위이자 전 세계 평균(51.02%)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백신 접종 완료율도 87.51%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 이처럼 높은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로 이어졌으며, 관광업의 빠른 회복세, 민간소비 및 부동산업 등 내수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5] 국가별 백신 접종 현황(2021.11.7. 기준)



자료: Our World in Data

정책성과

향후 50년을 위한 '프로젝트 50' 추진

- 2021년 9월 UAE 정부는 건국 5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50년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장기 개발 및 경제 프로젝트 계획인 '프로젝트 50(Projects of the 50)'을 발표하였으며, 2차에 걸쳐 26개 세부 프로젝트를 공개⁸⁾하였음.
- 주요 육성 분야는 경제, 기업가 정신, 첨단기술(skills/technologies), 디지털 경제, 우주산업 등이며, 자국민 인재 양성 및 민간 취업·창업 촉진을 주요 목표로 함.

(1) 비자 시스템 개편(비자 및 취업 허가 시스템의 현대화)을 통한 고급인력 확보

- ① 고용주의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그린 비자(Green Visa)의 발급 대상을 고숙련 인력, 투자자, 기업가, 우수 학생·졸업생 등으로 확대
- ② 인공지능,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등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프리랜서 비자(Freelancers Visa) 도입

(2)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캠페인 실시

(3) 자국 기업 육성과 국산품 품질 향상을 위한 국내 이니셔티브 도입

(4) 주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무역 및 투자 거점화 강화

- 8개 경제 파트너 국가(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영국, 이스라엘, 케냐, 에티오피아)와 포괄적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8개국과의 교역규모를 현재의 2,570억 디르함에서 연간 400억 디르함씩 증대

(5) 디지털 이니셔티브

- 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연방 데이터법 제정
- ② 12개월 동안 매달 3,000명(매일 100명)의 신규 컴퓨터 프로그래머(coder)를 유치하여 코딩 인력을 현재의 6.4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충하고, 자국 내 프로그래밍 기업 설립 촉진
- ③ 2022년 하반기 중동 지역 최대 프로그래밍 서밋 행사인 파이콘 서밋(PyCon Summit) 개최로 디지털 인재 개발, 전문성 향상, 혁신적 기술 프로젝트 아이디어 제공, 글로벌 프로그램 커뮤니티 확장 지원
- ④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를 통해 첨단기술을 갖춘 UAE 국내 기업 500개 설립 및 양성

(6) UAE 기업환경 경쟁력 강화

- ① '10x10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10개국(중국,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러시아, 폴란드,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을 매년 10% 증대
- ② UAE 전역의 투자 기회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 포털 'Invest.ae' 출범
- ③ 공공·민간 부문과 투자펀드를 연계하는 '에미리트 투자 서밋' 개최를 통해 향후 9년 간 5,500억 디르함 규모의 FDI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8) <https://u.ae/en/about-the-uae/initiatives-of-the-next-50/projects-of-the-50> (조회일자: 2021.11.12.).

정책성과

- ④ 지방의 중소기업 지원 및 국산품 육성을 위해 '현지 조달 부품 의무 사용 프로그램' 도입⁹⁾
- ⑤ '프로젝트 50억'을 통해 주력 산업 부문에 50억 디르함 배정
- ⑥ 산업 부문의 첨단기술 지원을 위한 50억 디르함 규모의 '테크 드라이브 프로그램' 출범
- (7) 자국민 인재 육성 및 민간 부문의 취업·창업 촉진 등을 위해 13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포괄적 연방 프로그램인 'NAFIS'¹⁰⁾ 시행
 - ① 자국민 7.5만 명의 민간 부문 취업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위원회(the Emirati Talent Competitiveness Council) 창설
 - ② 민간 기업의 자국민 의무 고용비율을 2025년까지 10%로 제고
 - ③ 인센티브 차원에서 민간 기업에 취업한 자국민 졸업생 앞 연수기간 중 월 8,000디르함 지급 및 이후 5년 간 월 5,000디르함 지급
 - ④ 인센티브 차원에서 전문인(간호사, 회계사, 회계감사, 변호사, 애널리스트, 프로그래머) 앞 최대 5,000디르함을 지급하는 '메리트 프로그램' 도입
 - ⑤ 월급여 2만 디르함 미만인 직원 앞 5년 간 본인의 연금 기여금 대납 및 자국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측의 최초 5년 간 연금 기여금 비용 대납
 - ⑥ 21세까지 자녀 1인당 800디르함(최대 3,200디르함)의 자녀 교육비 지원
 - ⑦ 자산관리, 회계, 경영, 기술 등 전문직업인 육성을 위한 12.5억 달러 규모의 '탈런트 프로그램' 도입
 - ⑧ 직업훈련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견습생 프로그램' 도입
 - ⑨ 2025년까지 의료 부문 종사자 1만 명 배출을 목표로 '헬스케어 개발 프로그램' 도입
 - ⑩ 6개월 간 실업급여 제공(단, 자발적 퇴사자 제외)
 - ⑪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 안식년 제공 및 6~12개월 간 급여의 50% 지급(2022년부터 시행)
 - ⑫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기퇴직 직원 앞 퇴직 후 5년 간(또는 일시불) 급여 지급
 - ⑬ 10억 디르함 규모의 펀드를 통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소액대출 제공

9) 2025년까지 연방정부 및 주요 UAE 기업 조달 중 현지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42%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지 공급업체 수를 5,000개에서 7,300개로, 조달금액은 현재 330억 디르함에서 550억 디르함으로 증대코자 함

10) 아랍어로 '경쟁'을 의미하는 총 240억 디르함 규모의 프로그램으로, 2021~25년 민간 부문에서 자국민의 일자리 7.5만 개를 창출하고 전체 직원 중 자국민 비중이 10%로 제고되는 것을 목표로 함

정책성과

향후 10년 간의 개발계획 비전인 「We the UAE 2031」 선포

- 2022년 11월 UAE 정부는 연례 정부회의에서 「UAE Vision 2021」을 잇는 향후 10년 간의 개발계획 비전인 「We the UAE 2031」을 제시함.
- GDP 규모 2배 확대, 비석유 교역규모 8,000억 디르함으로 확대, 대외 교역액 4조 디르함으로 확대 등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사회, 경제, 외교, 생태계 4대 분야별 전략 방향을 제시함.
 - (1) 사회: 교육·훈련 강화 등 국민의 자기 개발 및 역량 강화, 사회 기여 확대를 위한 통합적 시스템 구축, 가족 통합 지원, 보건·의료 품질 제고 등 삶의 질 제고 지원
 - (2) 경제: 인적자본 개발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및 녹색경제 선도 등을 바탕으로 경제 전 영역에 걸쳐 높은 성장률 달성
 - (3) 외교: 지역 및 글로벌 레벨에서의 그간의 평화·협력 노력을 바탕으로 UAE의 영향력 및 중추적 역할 강화, 기후변화·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 과학기술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혁신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 (4) 생태계: 정부 역량 강화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서비스 제공, 선제적·탄력적 입법조치를 통해 신사업·신경제 창출 선도, 디지털을 포함한 인프라 첨단화, 식량·수자원·사이버 보안 등 가장 안전한 사회·국가 구현

정치안정

아부다비의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연방정부 체제 유지

- UAE 정부는 아부다비, 두바이, 아즈만, 푸자이라흐, 라스 알-하이마흐, 샤르자흐, 움 알-카이와인의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정부로, 1971년 수립 이후 연방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으나 토후국별로 각각의 왕정이 있으며 자주권이 상당 부분 보장되고 있음.
- 경제규모가 가장 큰 아부다비와 두바이 간 권력이 적절히 배분된 상황에서 UAE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부다비가 다른 토후국들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연방정부 체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내 정치적 리스크는 매우 낮은 편임.
- 아부다비 왕실 가문(AI Nahyan)은 UAE 연방 대통령, 외교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직을, 두바이 왕실 가문(AI Maktoum)은 부통령 겸 총리*,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직을 각각 세습하고 있음.
* UAE 내각의 수장은 총리이며, UAE 연방헌법 제54조에 의거 대통령이 총리, 부총리, 장관 임면권을 보유
- 장기간 투병 중이던 연방 대통령이자 아부다비 군주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2004.11월 왕위 계승)가 2022년 5월 사망한 후 이미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을 담당해온 이복동생인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가 순조롭게 대통령직을 승계함. EIU는 권력 이양이 국내외 정책 연속성 및 정치적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사회안정

거버넌스 및 정치적 안정성은 우수한 편이나 시민참여 및 언론 자유는 제한적

- 2021년 기준 세계은행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에 따르면 UAE는 정부 효율성 및 정치적 안정성 항목은 우수하나, 시민의 정치 및 정책 참여, 표현의 자유 등의 항목은 낮은 수준임.
- 항목별로는 정부 효율성 지표*가 209개국 중 21위로 가장 높았으며, 사익 추구를 위한 공권력 및 일부 계층의 지배력 행사로부터의 부패 통제도 우수(33위/209개국)하였음.
 - * 공공 서비스의 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정부의 정책 수립·이행 능력 및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 신뢰성 측정
- 또한, 정치적 불안 및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테러 포함)의 부재 정도를 측정하는 정치적 안정성도 213개국 중 69위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그러나 국민의 정치 참여, 표현·언론의 자유 보장을 측정하는 여론 반영 지표는 208개국 중 169위에 그쳐,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 또는 발언권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2021년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도 UAE는 180개국 중 131위에 머물러 국가에 의한 언론 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UAE 정부는 특히 왕족과 정부에 대한 비판 및 불만 표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중위권(3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는 2022년 10월 보고서에서 UAE에 대한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부여하였으나, 세부 항목별로 등급 편차가 큰 편임. Moody's는 ESG 요소가 현재 UAE 정부채권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함.
- **(환경: 4등급)** 석유 부문에의 높은 경제의존도, 에너지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담수화 시설에 대한 수자원 공급의 높은 의존도, 해수면 상승에 따른 환경 리스크 민감도 증가(해수면 1m 상승 시 인구의 10% 위험 노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사회: 2등급)** 노동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한 청년층으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은 향후 주요 사회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저실업률 유지를 위한 자국민 고용 촉진정책의 효과는 이와 관련한 주요 고려 항목으로 작용될 예정임. 다만, 노동시장 및 총인구 대비 낮은 자국민 비율과 비석유 부문으로의 다변화된 경제구조는 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경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됨.
- **(지배구조: 1등급)** UAE의 제도 및 거버넌스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 비석유 부문으로의 경제 및 정부 수입 다변화 관련 성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GCC 회원국 간 협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021년 1월 UAE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와 함께 GCC 정상회의에서 카타르와 외교 정상화 협정을 체결, 수교를 재개하였음.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역내 경제적 지배력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여, GCC 회원국(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간의 협력은 당분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됨.
- UAE는 중동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GCC 내 경제·금융·투자 허브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면서 양국 간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중동 지역 사업의 본거지를 두바이에 두고 있는 가운데 2021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중동 지역 본부를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 두지 않은 기업은 정부 발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등 노골적으로 UAE를 견제하며 외국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자, UAE는 '프로젝트 50' 등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전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우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음¹¹⁾.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정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UAE는 2021년 7월 OPEC+ 회의에서 각국의 원유 생산량을 재산정해 쿼터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증산 합의안에 반대하여 원유 증산 협상이 결렬된 바 있음.
- 예멘 내전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슈도 두 국가의 동맹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UAE는 예멘 내전 개입 초기부터 외교적 해결을 주장해온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력 사용을 주장해왔으며, UAE는 예멘 내전 개입으로 인해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피하고자 2019년 중반부터 예멘에서 철군하였음. 또한, UAE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함.

친미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란과의 적대적 갈등 상황 회피를 위해 노력

- UAE는 미국과의 강력한 연대를 유지코자 하나 미국의 무조건적인 군사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자국의 제한적인 군사적 역량을 감안하여 이란과의 적대적 갈등 상황을 피하고자 함*.
- * 2019년 7월 이란과의 추가적인 군사 갈등을 피하고 예멘 후티 반군(친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경감시키고자 예멘 친정부군 지원을 위해 파견했던 병력 일부를 철수한 바 있음.
- 지정학적 안보 강화에 따른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코자 경제적 차원에서도 이란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함.
- 양국은 수개월 간 외교장관급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5월 UAE 대통령이 사망한 후 이란 외무장관이 방문해 조의를 표하는 등 관계 개선의 제스처를 보였음.
- Fitch는 두 국가의 화해가 핵협상 회담 재개보다 앞서 이루어진 만큼, 핵협상 결렬이 두 국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측함.

국제관계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와의 관계 개선

- UAE는 2020년 9월 15일 미국의 중재하에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완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하였음.
- 협정 체결 이듬해인 2021년 UAE와 이스라엘 간 무역규모는 10억 2천만 달러로 전년(1억 9천만 달러) 대비 5배 이상 늘어났으며, 항공우주, ICT, 보건의료 등에 대한 직접투자도 전년(7건)보다 2건 증가한 9건을 기록하였음.
- 2022년 5월 31일 UAE는 아랍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였음. UAE는 이번 FTA 체결로 자국과 이스라엘 간 무역규모가 5년 내로 1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2022년 3월 Bashar Al-Assad 시리아 대통령이 UAE를 전격 방문하면서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 발생 이후 적대적이었던 양국 관계에 변화가 예고됨.
-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 회원국들(대부분 수니파)은 11년 전 시리아에서 발생한 수니파 주도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시리아 정부(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가 주도)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며 대사관을 폐쇄하는 등 시리아를 아랍권에서 고립시켰으나, 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란 등의 군사 지원으로 승기를 잡자 시리아에서의 이란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시리아 주재 대사관의 업무를 재개하는 등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임.
- 2022년 2월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여 국방, 무역, 기술, 농업 등의 분야에서 13개의 협정에 서명함.
- 아랍의 봄 이후 터키와 UAE는 이집트, 리비아, 카타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며 경쟁 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튀르키예는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으로, UAE는 시장 다변화 목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함.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율 고려 시 외채상환태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 2022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UAE에 대한 원리금 잔액은 195.8억 달러(단기 33.6억 달러, 중장기 162.2억 달러)이며, 연체율은 0.09%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주요 ECA들은 UAE 프로젝트에 대해 모두 인수 가능

- 미국 US EXIM, 영국 UKEF, 독일 HERMES 모두 UAE의 단기 및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인수 가능함.
- UKEF의 경우 UAE 수출금융 지원대상은 아부다비이며, 두바이는 별도의 수출금융 지원국(단기, 중장기 인수 가능)으로 관리하고 있음.
- HERMES의 경우 UAE 중앙정부 및 토후국별로 총 8개의 수출신용 정책을 관리 중이며, 토후국 중 아즈만을 제외하고는 인수 제한이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22.01)	2등급(2021.01)
Moody's	Aa2 (2021.05)	Aa2 (2019.05)
Fitch	AA- (2022.10)	AA- (2021.11)

주) 아부다비 신용등급

OECD 및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신용등급 유지

- OECD는 2013년부터 UAE에 대해 2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21년 5월 역내 지정학적 위험 상존과 석유 부문에 대한 경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아부다비 정부의 여타 토후국들에 대한 재정지원, 높은 1인당 GDP 수준(2019년 63,590달러), 우호적 국제관계 유지 및 높은 국내정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UAE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a2 등급으로 유지하였으며, Fitch 역시 2022년 10월 UAE에 대한 기존 등급(AA-)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UAE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유가 약세 및 산유량 감소로 -4.8%의 역성장을 기록한 뒤 이듬해인 2021년 국내외 경기 회복 등으로 3.8%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2022년에는 산유량 증가 및 고유가 지속, 민간소비 증가,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귀, 부동산 부문의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5.1%의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
- 연방 대통령 겸 아부다비 군주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가 장기간 투병 끝에 2022년 5월 사망한 후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오던 이복동생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제가 순조롭게 대통령직을 승계함.
- 전통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는 중동 지역 내 경제적 지배력의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한편, 이란,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 등의 국가들과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짐.